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Inter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김아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혜 원

이 논문을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7월

울 산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아 동 · 가 정 복 지 학 과  
김 아 름

김아름의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영 주	㉠
심 사 위 원	이 채 호	㉠
심 사 위 원	박 혜 원	㉠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19년 7월

## 국 문 초 록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김 아 름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및 유아지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가족상호작용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2. 가족상호작용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3.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일반조사(2013년)와 2차 심층조사(2013)에 모두 참여한 만 5세 유아와 이들의 어머니 22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감과 어머니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요인만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족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Olson(2010)이 개발한 가족적응·응집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FACES-IV)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박혜원, 광금주, 박광배(1996)가 표준화한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orea 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Intelligence, K-WPPSI)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

그램에서 기술통계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어머니보다 남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상호작용에서 가족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이 중간이상 수준(대체로 좋다)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어머니보다 여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 전체지능은 평균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은 남아보다 여아가 높았으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동작성지능, 언어성지능, 전체지능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동작성지능, 언어성지능, 전체지능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셋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동작성지능, 언어성지능, 전체지능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언어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이 부분매개함을 입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이 유아의 언어성지능 발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유아기 인지 및 언어성 지적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가족상호작용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

주요어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 차 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6
3. 용어의 정의 .....	7
<b>II. 이론적 배경</b> .....	<b>8</b>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	8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	8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간의 관계 .....	10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 .....	11
2. 가족상호작용 .....	13
1) 가족상호작용의 개념 .....	13
2)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 간의 관계 .....	14
3. 유아지능 .....	16
1) 유아지능의 개념 .....	16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 간의 관계 .....	18
<b>III. 연구방법</b> .....	<b>19</b>
1. 연구대상 .....	19
2. 연구도구 .....	20
3. 연구절차 .....	23
4. 자료분석 .....	23
<b>IV. 연구결과</b> .....	<b>24</b>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 .....	24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	24
2) 가족상호작용의 일반적 경향 .....	24
3)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 .....	25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간의 상관 .....	27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 .....	29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29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 .....	30
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32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33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35
<b>V. 논의 .....</b>	<b>37</b>
1. 논의 및 결론 .....	37
2. 제언 .....	41
<b>참고문헌 .....</b>	<b>43</b>
<b>Abstract .....</b>	<b>53</b>
<b>부록 .....</b>	<b>56</b>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9
<표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	21
<표 3> 가족상호작용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	21
<표 4> 유아지능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	22
<표 5>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	24
<표 6> 가족상호작용의 일반적 경향 .....	24
<표 7>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 .....	25
<표 8>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간의 상관 .....	28
<표 9>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29
<표 1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 .....	30
<표 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33
<표 1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35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6
[그림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 효과 도식 .....	34
[그림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 효과 도식 .....	3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 전 세계 유아의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16). 즉, 현대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미래사회의 준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사회에 직면하게 될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잘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도남희, 박창현, 김지현, 조혜주, 2016). 그리고 이러한 능력에 대해 다보스포럼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오 되지 않으려면 지능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지인, 2018). 지능은 일반적으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유창성,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윤소영, 2017; Siegler & Richards, 1982)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비한 지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대사회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육성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순복, 2005). 그리고 이러한 인적자원 육성의 효과는 전 생애 중 유아기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장명립, 이미화, 김은영, 김문정, 2008)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아기 지능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아기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능발달의 유전적 요인에 관련하여 쌍생아와 친족 그리고 입양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비교(Bouchard & McGue, 1981; Nichols, 1978; Scarr, 1997)를 실시한 연구는 지능발달의 유전적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또한 유아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능을 상당 수준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한 연구(Kirk, 1958)와 성취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지능지수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Wolf, 1964), 유전적으로 결정된 지능도 환경의 영향으로 발달되거나 퇴보될 수 있다는(Skeels, 1966) 연구결과를 통해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력의 중요성도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전 및 환경의 단일요인이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Gardner, 2006). 그러나 지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관심이 더 높았고, 환경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Shenkin, Starr & Deary, 2004).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Wechsler유아지능검사는 언어적 추리, 지각적 추리, 작

동기억, 처리속도 등의 지능요인을 측정하여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산출한다(임지영, 외, 2017).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으로 두 지능의 점수차이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차이와 교육적 차이에서 기인된다(최지현, 2013). 또한 동작성지능은 언어성지능에 비해 감각 운동적 요소, 정서적 요소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두 지능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여러 가지 지적, 정의적 특성에 관련한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박혜원, 광금주, 박광배, 1996). 그리고 Wechsler유아지능검사의 표준화 연구에서도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은 잘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원, 외, 1996).

Cattell의 이론에 따르면 유아의 지능은 유동성지능과 결정성지능으로 구분된다. 유동성지능은 생애 초기에 급속하게 향상되고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적능력이고, 결정성지능은 환경적, 문화적, 경험적 영향을 받는 지적능력을 의미한다(Cattell, 1941). 일반적으로 동작성지능검사는 유동성지능을 측정하고, 언어성지능검사는 결정성지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학업적 성취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아의 경우 언어성지능이 동작성지능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한국아동검사연구회, 2010).

이러한 유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을 들 수 있다(조옥미, 2005; 홍지연, 2006). 가정환경은 전 생애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마주리, 외, 2017),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과 자극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정환경은 가족 간의 관계, 가족구성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설명해준다(이미옥, 고정자, 1992). 가정환경과 지능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Bernstein, 1961; Bradley & Caldwell, 1976; Witt & Cunnigham, 1979)은 대개 부모의 학력, 사회계층 등 가정환경의 지각적 변인을 다루었고, 가정환경의 과정적 변인을 다룬 몇몇 연구(윤경희, 1999; Halpern, 1997; Hess & Shippman, 1965; Wolf, 1964)에서는 가정 내 언어적환경, 정서적 분위기, 다양한 경험의 제공 등이 지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서주현, 2009,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가족과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가정환경이 유아의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제반요인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의 기능으로 정하여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양육의 특성이고(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 2013; Belsky, 1984), 이러한 부모 양육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이다(임지영, 외, 2017).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서주현, 김진경, 2012), 나날이 더 강력해지는 경쟁에서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서주현, 김진경, 2012, 재인용)를 의미한다. Abidin(1990)은 자녀양육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부모가 일상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유

발하는 것으로 이를 양육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무관심을 야기하여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고(Abidin, 1990), 지속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와 유아의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김기현, 2000; 정소영, 조결자, 2007; Onodera, 2005), 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성 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owan & Cowan, 2000). 이렇듯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출산과 보편적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았고(고성혜, 1994; 문혁준, 2004; 지성애, 2016), 유아의 어휘능력이 낮았다(민현숙, 문영경, 2013).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유아에게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자주 하였고(김미숙, 2005; 안지영, 2001; 장희정, 2005),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전반적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도현심, 2004).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Margalit & Kleitman, 2006), 유아의 사회성발달, 정서발달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유아의 지적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전체지능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고, 유아의 토막짜기 수행에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은지(2009)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 동작발달이 낮다고 보고한 정미라, 강수경, 이방실, 김민정(2014)의 연구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소근육 운동기술발달과 인지발달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경하(2009)의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주로 유아의 동작성발달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며, 경험의 영향을 덜 받는 능력인 유동성지능과 교육·경험·문화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능력인 결정성지능을 주장한 Cattell(1941)의 이론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유아지능이 혼재된 연구 결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유아의 동작성지능 발달의 관계만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유아지능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지(2016)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소재의 한정적인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였고, 정미라(2014)등은 유아의 인지, 동작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베일리 영아발달

검사(K-BSID)를 사용하였으며, 이경하(2009)의 연구는 15~3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표집된 한국아동패널의 비교적 대규모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유아의 지능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앞서 유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성혜, 1994; 고은경, 2017; 김윤경, 2015; 오연택, 2018). 하지만 지금까지의 가족의 기능에 관련된 연구들은 학령기 이상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기능과 유아의 지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가족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개념화 하는가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물리적이고 형식적이며, 부모 중심의 특성으로 개념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강병재, 2010; 신동은, 2001; 양진희, 김영철, 2016; 옥경희, 2017; 홍예지, 이순형, 2017a; 2017b),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와 관계를 규명해 내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오채영, 2010, 재인용). 따라서 가족의 기능과 가족구성원들 간의 특정한 관계의 초점에서 가족기능에 중요성을 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Kantor & Lehr, 1975; Minuchin, 1974; Olson & Gorall, 2003). 가족의 기능을 살펴본 국내연구에서도 가족기능의 전체를 이용하여 가족 간 상호작용수준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강병재, 2010; 이선미, 강윤희, 2015). 이는 가족상호작용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연은모, 윤혜옥, 최효식, 2016), 가족상호작용의 하위요인들이 가족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유사한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음(양진희, 2016)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의 기능의 명칭을 영유아발달 영역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상호작용으로 사용한다(옥경희, 2017).

유아에게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서수민, 2018; 우지혜, 2019),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애정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과 보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정그린, 2016). 그리고 유아의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백문화, 1991; 송은경, 2003; 이채호, 2016; 장경자, 최재호, 2013; 정선미, 2011). Bronfenbrenner(1979)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통해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환경을 가족이라 하였고, 유아는 미시체계인 가족과 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해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Berk(2004)는 유기체인 유아와 미시체계인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방향적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족과 유아는 연속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서 가족은 유아를, 유아는 가족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변인이 유아의 발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

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도 유아에게 적절한 양육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족의 변인과 유아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면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옥경희, 2017).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유아지능을 예측해주는 두 변인 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 기초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지능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지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거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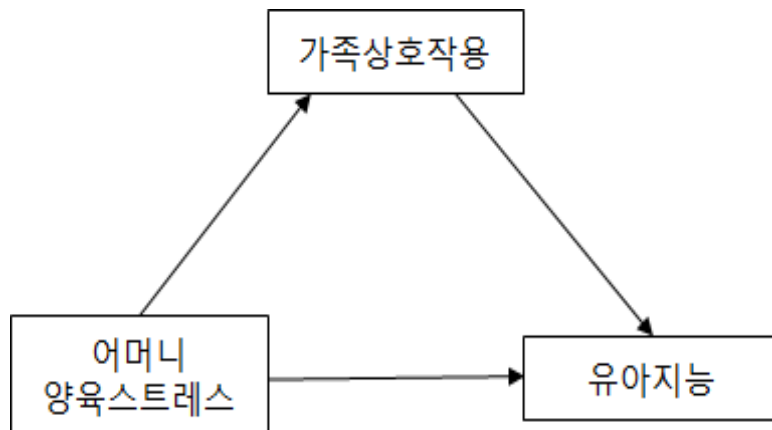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그리고 유아지능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지능발달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능발달을 돕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2. 가족상호작용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3.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근거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용어의 정의

####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동적 경험이나 계속되는 요구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어머니의 우울 및 고통, 어머니와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된다(Abidin, 1992).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로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어려움으로 정의한다.

#### 2) 가족상호작용

가족상호작용이란 가족의 기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Olson, et al, 1983)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서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원이 속해있는 가정에 연결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Olson., Bell & Portner, 1982). 또한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리더십과 관계의 규칙, 그리고 역할에 대한 질(quality)과 표현(expression)으로 정의된다(이정희, 2016). 본 연구에서 가족상호작용은 Olson(2010)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족 간의 상의나 질문 없이 평소 가족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어머니가 보고한 것을 뜻한다.

#### 3) 유아지능

유아의 지능이란 유아의 전반적인 지적능력을 의미하며, 지능지수 및 IQ(Intelligence Quotient)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유아의 지능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의도적인 적응능력과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현실과 환경을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ternberg, 1985). 본 연구에서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인 한국 유아지능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를 사용하였고, 유아지능은 K-WPPSI로 측정되는 전체지능을 뜻하며, 하위요인으로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유아지능의 개념과 유아지능발달과 관련된 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부모에게 자녀의 출생은 행복을 안겨다 주는 동시에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김선화, 2005). 부모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녀에게 일상적인 양육과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경제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엄선희, 1999).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좋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Abidin, 1990).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닌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한다(Abidin, 1990).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양육에 필요한 자원 사이의 불균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정의될 수 있다(Raphael, Zhang, Liu & Giardino, 2010; Sepa, Frodi & Ludvigsson, 2004).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이 과중하거나 스스로가 유능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짜증, 어려움, 성가심 등으로 지각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Zhang, Cubbin & Ci, 2019). 그리고 박경미(2014)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신체적 피로와 양육의 부담감, 역기능적 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정신적 피로를 양육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기현(1997)은 자녀의 출산 및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이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어 부모의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Crnic와 Greenberg(1990)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

고 가족의 상호작용적 형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 정서를 뜻하며(오수진, 2017), 가족의 상호작용적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경쟁에서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자녀의 학업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커졌고(서주현, 김진경, 2012), 그로인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부모-자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Patterson, 1983). 이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핵가족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가족사회였던 과거와 다르게 핵가족에서는 자녀 양육이나 출산의 간접 경험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과 양육지식 및 기술, 지원의 부족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된다(서주현, 김진경, 2012).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중에서도 자녀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기현, 2000; 김정애, 2001). 어머니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사회통념 및 여건상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행해져 왔다. 통계청(2015)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항목에서 70%를 상회하고 있고, 이러한 자녀양육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더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지각되고 있다(박해미, 1994).

Lazarus(1984)는 축적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고, 그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과다할 경우 그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이경하, 2009). 송연숙과 김영주(2008)는 영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와 가족의 역할 등의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처음 경험하는 양육에 대해 다른 시기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지각된다고 보고하였다(서은미, 2016). 하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이주옥(2008)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어머니보다 유아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Abidin, 1990), 이를 바탕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고은경(2017)과 김수원(2006), 정은아, 김은정(2014), 최미영(2011), 홍예지, 이순형(2017a), Lavee, Sharlin & Katz(1996), Shigeto, Mangelsdorf & Brown(2014)의 연구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은경(2017)과 Lavee, Sharlin & Katz(1996)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했을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중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수원(2006)과 Shigeto, Mangelsdorf & Brown(2014)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기질, 가족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홍예지와 이순형(2017a)은 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역할을 연구하였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을 매개로 온정적인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정은아, 김은정(2014)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최미영(2011)의 연구는 한부모 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도 가족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김윤경, 2015; 정소영, 조결자, 2007; Mitchell & Hauser-Cram, 2009)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의 전반적 상호작용 형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가족형태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우지혜, 2019)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형태의 건강성 및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이세은, 2016).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형태의 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가족의 상호작용적 형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가족구성원 안에서 친밀감과 적응력을 감소시켜 가족구성원이 상호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박찬경, 강지현, 201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상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개인적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영향

을 미치게 됨으로써 결국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우지혜, 2019, 재인용). 이를 기반으로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홍예지, 이순형, 2017a)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해서 보다 상호작용적인 가족관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 감정을 높게 지각하게 하며(신나리, 안재진, 2014; Crnic & Greenberg, 1990; Farmer & Lee, 2011),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서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Farmer & Lee, 2011). 특히 유아기의 자녀는 부모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위호성, 2014). 또한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을 악화 시켜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거나 자녀를 방임하는 등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박세룡, 박혜준, 2016; Crnic, Gaze & Hoffman, 2005; Mackler et al., 2015)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권소영, 박지수, 이재림, 2018).

특히 유아기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해 전반적인 발달을 이루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아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연택, 2018; 위호성, 2014, 재인용). 이러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발달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발달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진경, 김혜라, 2012; 김현미, 도현심, 2004; 문혁준, 2004; 임순화, 박선희, 2010).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발달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기는 경험이 누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경험이 누적되는 유아기의 특성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Abidin, 1992). 그리고 유아기는 기초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유아의 학습능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이정민, 조재현, 김영희, 2014).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기초능력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지적수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지(2016)의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지적능력 간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고, 유아의 동작성지능을 측정하는 소검사 중 토막짜기 소검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경하(2009)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 중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25개월에서 30개월 영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정미라(2014)등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인지발달과 동작성발달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적능력 간의 면밀한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박새롬, 박혜준, 2016),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박새롬, 박혜준, 2016),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이 낮다는 연구(위호성, 2014)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지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최영희, 2004),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언어성지능과 공간적지능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추성경, 2012)는 연구,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지식습득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지적능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 2. 가족상호작용

### 1) 가족상호작용의 개념

가족은 유아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물리적·신체적 측면에서 유아발달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유아는 출생과 동시에 가족에 소속되고, 가족 간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개인으로 성장해 나간다(홍지연, 2006). 가족구성원은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상호 간의 기능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성장을 도모한다(신동은, 2001). 가족은 자녀의 발달단계마다 요구되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소통 유형과 규칙 및 역할, 권력구조를 발달시켜 나간다(조옥미, 2005). Jakson(1965)은 가족을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체계로서, 가족원들이 서로 조직화되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형태로 행동한다고 하였다(정선미, 2011, 재인용). Ackerman과 Behrens(1956)는 가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향상시키는 힘을 가진 ‘인격의 요람’이라고 지칭하면서 가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그린, 2016, 재인용). 이처럼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의 구조는 하나의 역동적인 체계이고, 이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구성원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지나(2013)는 가족상호작용을 가족 내부와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Olson과 동료들(1983)은 개인의 문제를 가족체계의 바탕으로 볼 수 있는 복합순환 모델을 소개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가족적응·응집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가족적응·응집척도로 측정된 가족의 기능을 가족상호작용이라고 하며, 이는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 및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가족의 기능을 살펴본 연구들은 가족의 기능을 분류하는 것이 아닌 하위요인의 합을 이용하여 가족상호작용의 특성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강병재, 2010; 이선미, 강윤희, 2015; 장성희, 손상희, 손희정, 2015; 양진희, 2016; 양진희, 김영철, 2016; 연은모, 외, 2016).

이러한 가족상호작용은 가족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가족의 체계 및 가족관계가 서로 잘 기능하는가를 의미한다. 상호작용을 잘 하는 가족은 가족원의 자율성과 발달을 도모하며, 가족 간 정서적 유대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져 안정적인 가족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전귀연, 1993). 적절한 상호작용을 가진 가족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에도 개방적이어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동시에 가족 전체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Olson et al, 1979; 1982).

## 2)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 간의 관계

가족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조성희, 2017). 유아기에는 지능과 기억력 및 창의성 등 인지적 영역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지식이 획득되고, 사고력이 향상되기 때문에(이숙재, 이봉선, 1999; 이정식, 2004), 가족이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유아는 발달하고 성장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환경조성을 통해 지능발달이 촉진되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은 지능발달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향자, 2000). 이 시기의 유아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보호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며 가족환경 안에서 인지적 활동을 수행하고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가족과 연계하는 것이 유아지능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김동배, 권중돈, 2005). 또한 가족은 유아에게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제공하고, 신체적 발달과 건강의 근본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가족의 환경이 아동후기의 사회성과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윤종희, 김리진, 하수민, 2006; Case-Smith, 2005). 따라서 가족의 환경은 유아의 지적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지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논의 할 때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족환경은 유아기의 자녀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지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의 발달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연구(강병재, 2010; 연은모, 외, 2016; 오채영, 2010; 장성희, 외, 2015; 정지나, 2013)는 다수 있었지만, 유아의 지능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발달 간의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 두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부모와 유아기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서수민(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지능과 부모-유아 상호작용 간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유아기 자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활동이 유아기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윤혜경, 장유경, 박윤조, 박혜원, 권오식, 2011)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긍정적으로 형성된 가족 간 상호작용의 경험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증진시키고(Lamb, 2010), 유아가 가족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자극은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쪽에게서만 받는 자극과 비교하였을 때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유아기 지능발달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Luster, Okagaki, 1993). 또한 김수진, 김수영(2009)과 손문석(1983)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가정생활의 습관 등의 차이가 유아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송경화(2016)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언어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성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의 언어성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인숙(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유아의 언어능력발달과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병희(1996)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화목함이 가족형태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가족이 모두 화목하면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자신의 잠재력 및 신체적-심리적 특성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 간의 연관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지적영재유아의 가족상호작용이 일반유아의 가족상호작용보다 높다고 보고한(장경자, 최재호, 2013; 정선미, 2011) 연구와 유아의 영재성에 가족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이채호, 2016; Herskovits, 2000)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적영재의 영재성에 가족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 간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하지만 가족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지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면, Skeels(1966)는 보육원에 생활하며 적절한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유아를 정상적인 가정으로 옮겼을 때 지능지수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ronfenbrenner(1979)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통해 유아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고 복잡한 체계 속에서 발달하는 존재로 보며(조성연, 외, 2006),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가장 내부에 있으면서 중요한 곳인 미시체계가 유아 개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하며 관계 맺는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실제적이고 방법론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하나의 이론적 모델의 매개변인을 규정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Bronfenbrenner, 1992) 이 연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유아지능

#### 1) 유아지능의 개념

유아의 지능은 환경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능력으로 유아의 인지발달에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다(서주현, 2009; 최지현, 2013, 재인용). 유아의 지능을 이해하기에 앞서 지능은 단일 순수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다양한 능력으로 복합적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능력,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환경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정옥분, 2004). 그리고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일상적인 경험에서 학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Santrock, 2008), 목적을 위해 행동하거나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Binet와 Simon(1916)은 지능을 판단력과 실제적인 감각 및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능력이고, 판단과 이해 및 추리하는 것이 지능의 주요활동이라고 하였다. Terman(1921)은 지능을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Dearbone과 Rothney(1941)는 지능을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 또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Wechsler(1939)는 지능을 목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총합적·전체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Sternberg(1986)는 지능을 실생활 환경에 적응하며, 환경을 변형시키고 선택할 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지능에 대한 정의와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속성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능이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능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유아기는 취학 전의 시기로 성공적인 학업수행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고, 자녀의 학업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의 지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Wechsler지능검사를 사용하였는데, Wechsler지능검사는 임상심리학자인 D. Wechsler가 개발한 검사로 검사대상의 연령에 따라 유아용(WPPSI), 아동용(WISC), 성인용(WAIS)으로 구분되어 사용할 수 있다.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유아용 지능검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박혜원(1996) 등에 의해서 K-WPPSI(Korea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로 개발되었다. K-WPPSI는 WPPSI-R을 원도구로 한 것이고, 만 3세에서 만 7세 3개월까지의 유아의 지능을 크게 동작성지능(Performance IQ)과 언어성지능(Verbal IQ)의 2요인 구조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두 지능을 합한 것이 전체지능(Full Scale IQ)이라고 한다(박혜원 외, 1996).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는 과제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운동적 반응과 언어적 반응의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2요인인 동작성과 언어성의 두 검사로 나누었다고 할 수 있다(한국아동검사연구회, 2010; 최지현, 2013). 한명의 유아를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의 서로 다른 성질의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것과 같지만, 웨슬러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환경의 차이와 교육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한다(최지현, 2013).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 두 지능지수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러 가지 지적, 정의적 특성에 관한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박혜원, 외, 1996).

이와 관련하여 Cattell(1941)은 지능이 유동성지능과 결정성지능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유동성지능은 익숙지 않은 자극을 직면할 때, 즉각적인 적응력과 융통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결정성지능을 이전의 훈련, 교육, 문화적인 자극을 통해 개발된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작성검사는 유동성지능을 측정하고, 언어성검사는 결정성지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어성지능이 학습으로 형성되는 것에 반해 동작성지능은 유전적인 것으로 본다(한국아동검사연구회, 2010).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Cattell(1941)의 이론에 따라 유아의 동작성지능보다 언어성지능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은지(201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동작성지능을 측정하는 토막짜기 소검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Cattell(1941)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공하는 환경적 영향과 함께 유아의 지적 발달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지능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 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에 관련한 중요한 내·외적 변인으로 간주되지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그리고 유아지능의 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가족의 환경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지적능력 간의 관계 다룬 선행연구가 있었는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과 지적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오연택(2018)의 연구와 지적영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촉매요인으로 가족환경을 연구한 김정휘(2000)의 연구, 그리고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 간 차이를 알아본 정선미(2011)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오연택(2018)의 연구는 K도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208명과 어머니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검사도구, 자아존중감 검사도구, 외현화 문제행동 검사도구를 사용하였고, 지적능력 검사도구로는 KABC-II를 사용하였다. 위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지적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유아의 지적능력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김정휘(2000)의 연구에서는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변인에 관한 촉매요인을 제시하였고, 가족의 관계가 높은 수준의 융통성과 결속력, 그리고 탄력성이 있는 가족일수록, 관심 및 격려를 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가족의 형태일수록 지적영재성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의 촉매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선미(2011)의 연구에서는 K-ABC와 K-WPPSI 지능검사에서 상위 15% 이내의 지적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낮았고, 가족기능성은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의 상호작용적 환경은 유아의 지적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지능검사를 직접 적용하여 측정된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다양한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능을 교육과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언어성지능과 비교적 선천적이고 생리적인 근거가 있는 동작성지능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SKC) 6차년도 일반조사(2013년)와 2차 심층조사(2013)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출생한 영아를 대상으로 매년 아동, 부모, 가정, 사회 변인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고,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서비스특성, 지역사회특성, 육아지역정책특성에 걸쳐 국가수준의 패널을 구축하여 단일 연령의 횡단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이영진, 김미래, 이은형,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일반조사와 2차 심층조사에 모두 참여한 60개월에서 66개월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22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23)

대상	특성	구분	N	%
유아	성별	남	133	59.6
		여	90	40.4
	월령	60~62개월	129	57.8
		63~66개월	94	42.2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3	23.8
		전문대 졸업	71	31.8
		대졸 이상	99	44.4
	연령	28~29세	4	1.8
31~35세		92	41.3	
36~39세		102	45.8	
40~44세		25	11.1	

<표 1>과 같이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33명(59.6%), 여아가 90명(40.4%)이고, 유아의 월령은 60~62개월이 129명(57.8%), 63~66개월이 94명(42.2%)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53명(23.8%), 전문대 졸업이 71명(31.8%), 대졸이상이 99명(44.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28~29세가 4명(1.8%), 31~35세가 92명(41.3%), 36~39세가 102명(45.8%), 40~44세가 25명(11.1%)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가족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상호작용 척도를,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도구의 문항구성과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척도에서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부분을 인출하여 구성하였다. 12문항 중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문항을 제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 응답의 11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등이 있다.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 문항구성, 문항 수 및 Cronbach's  $\alpha$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 수	Cronbach's $\alpha$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 2, 3, 4, 5, 6, 7, 8, 9, 10, 11	11	.89
	전 체	11	.89

## 2) 가족상호작용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안 한 가족상호작용(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Olson, 2010)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와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과 역할관계 속의 변화성과 가족 리더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질문 내용으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가족 내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우리 가족은 분명한 규칙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와 같은 문항이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 문항구성, 문항 수 및 Cronbach's  $\alpha$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가족상호작용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 수	Cronbach's $\alpha$
가족상호작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91
	전 체	14	.91

### 3) 유아지능

표준화된 개인검사 중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Wechsler지능검사는 한국 아동패널 2차 심층조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만3세~만7세 3개월 아동의 정신 능력 개인차에 주목한 심리측정적 접근의 지능검사로 박혜원(1996)등이 표준화한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orea 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Intelligence, K-WPPSI)가 사용되었다. K-WPPSI 지능은 평균이 100, 표준편차 15인 표준점수로 환산된 표준지능지수이다. 지능 69이하는 지능결손, 70~79는 경계선, 80~119는 평균, 120~129는 우수, 130 이상은 최우수로 분류된다. K-WPPSI의 지능은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으로 구분되고, 소검사 구성문항은 동작성(미로, 빠진곳 찾기, 동물 짝짓기, 모양맞추기, 도형, 토막짜기)과 언어성(공통성, 문장, 상식, 이해, 산수, 어휘)으로 구분되며, 각각 6개씩의 전체 12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있다. 소검사에 따라 검사자가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시범문항과 아동이 과제를 연습 할 수 있는 연습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소검사에는 초기 설명문항에서 수정피드백을 지침에 따라 제공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발달수준진단을 위하여 아동이 개별적으로 거점지역별 검사실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자인 심층조사원이 지침에 따라 채점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문항점수를 더하여 소검사 원점수를 계산하였고, 지침서를 토대로 원점수를 규준연령 집단별 환산점수로 계산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지능과 하위영역인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각각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 문항구성 및 Cronbach's  $\alpha$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지능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소검사	Cronbach's $\alpha$
동작성지능	1. 모양맞추기, 3. 도형, 5. 토막짜기, 7. 미로, 9. 빠진곳 찾기, (11. 동물 짝짓기)	.74
언어성지능	2. 상식, 4. 이해, 6. 산수, 8. 어휘, 10. 공통성, (12. 문장)	.82
	전 체	.84

※ 소검사 옆 번호는 검사의 시행 순서입니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6차년도 일반조사와 2차 심층조사의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자료는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고, 표본 구축을 위해 2006년도 기준으로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전국의 의료기간에서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의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시도구는 CAPI(보호자용) 설문지와 아버지 대상 설문지, 어머니 대상 설문지, 아동용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다 더 심층적이고 깊은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하는 심층조사는 참여 희망자를 기준으로 권역별 거점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심층조사는 1차(2009년) 206건, 2차(2013년) 415건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6차년도 일반조사와 2013년도 2차 심층조사에 모두 참여한 223가구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a*)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간의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

####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표 5>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변인	구분	<i>N</i>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양육스트레스	남아	133	2.68	.66	1.18	4.64
	여아	90	2.56	.60	1.18	4.09
	전체	223	2.63	.64	1.18	4.64

<표 5>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63( $SD=.64$ )이었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남아의 평균이 2.68( $SD=.66$ )로 여아의 평균 2.56( $SD=.60$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5점 척도를 고려할 때 2점(별로 그렇지 않다)과 3점(보통이다)사이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2점과 3점의 평균으로 보고한 오수진(2017)과 이경하(2009), 정선미(2011), 홍지연(200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여아를 둔 어머니보다 남아를 둔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한 이은지(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2) 가족상호작용의 일반적 경향

<표 6> 가족상호작용의 일반적 경향

하위요인	구분	<i>N</i>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가족상호작용	남아	133	3.75	.60	1.86	5.00
	여아	90	3.83	.46	2.43	4.79

전체	223	3.78	.55	1.86	5.00
----	-----	------	-----	------	------

<표 6>에서 가족상호작용의 전체 평균은 3.78( $SD=.55$ )으로 5점 척도를 고려할 때 4점(대체로 그렇다)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상호작용은 여아의 평균이 3.83( $SD=.46$ )로 남아의 평균 3.75( $SD=.60$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가족상호작용이 4점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한 이순복(2005)과 정그린(2016), 정선미(201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가족상호작용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다고 보고한 오채영(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3)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

<표 7> 유아지능의 일반적 경향

변인	하위요인	구분	<i>N</i>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동작성지능	남아	133	105.15	15.49	66	141
		여아	90	106.07	12.28	72	128
		전체	223	105.52	14.26	66	141
유아지능	언어성지능	남아	133	98.56	14.87	62	133
		여아	90	100.46	13.93	66	139
		전체	223	99.33	14.50	62	139
	전체지능	남아	133	102.12	14.62	65	144
		여아	90	103.13	11.89	69	132
		전체	223	102.53	13.56	65	144

<표 7>에서 유아의 전체지능 평균은 102.53( $SD=13.56$ )이었고, 동작성지능의 전체 평균은 105.52( $SD=14.26$ ), 언어성지능의 전체 평균은 99.33( $SD=14.50$ )이었다.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동작성지능은 여아( $M=106.07$ ,  $SD=12.28$ )가 남

아( $M=105.15$ ,  $SD=15.49$ )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언어성지능은 여아( $M=100.46$ ,  $SD=13.93$ )가 남아( $M=98.56$ ,  $SD=14.87$ )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지능은 여아( $M=103.13$ ,  $SD=11.89$ )가 남아( $M=102.12$ ,  $SD=14.62$ )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능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 15인 표준점수로 환산된 표준지능지수이며, 130 이상은 최우수, 120-129는 우수, 80-119는 평균, 70-79는 경계선, 69이하는 지능결손으로 분류된다(박혜원, 외, 1996).

본 연구에서 동작성지능은 105.52, 언어성지능은 99.33, 전체지능은 102.53의 평균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유아의 지적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Wechsler유아지능검사 수행을 보고한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유아의 동작성지능은 103.68, 언어성지능은 103.68, 전체지능은 103.23의 평균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윤소영(2017)의 연구와 유아의 동작성지능은 105.72, 언어성지능은 98.50, 전체지능은 101.94로 평균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최지현(201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여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이 남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서주현(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간의 상관

아래의 <표 8>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은 하위영역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지능의 세 영역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살펴보면 각각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동작성지능( $r=-.14, p<.05$ ), 언어성지능( $r=-.26, p<.01$ ), 전체지능( $r=-.26, p<.01$ )의 모든 수행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 전체지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지능과 가족상호작용의 관계를 영역 별로 살펴보았다.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은 가족상호작용( $r=.17, p<.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언어성지능 또한 가족상호작용( $r=.24, p<.01$ )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전체지능의 경우에도 가족상호작용( $r=.26,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기능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족에 소속된 유아의 지능이 높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각 변인들은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보다 언어성지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상호작용( $r=-.45, p<.01$ )의 모든 검사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낮게 보고하는 가족의 경우 가족의 상호작용이 높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8>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 간의 상관

	유아지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 작용
	동작성지능	언어성지능	전체지능		
동작성지능	1				
유아 지능	언어성지능	.30**	1		
	전체지능	.76**	.85**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4*	-.26**	-.26**	1	
가족상호작용	.17*	.24**	.26**	-.45**	1

\*\* $p < .01$ , \* $p < .05$

###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 및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상호작용이 하나의 단위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따라 이를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Kantor & Lehr, 1975; Minuchin, 1974; Olson & Gorall, 2003). 또한 Wechsler유아지능검사의 유아지능이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괄하는 단일 구성체이지만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 전체지능 각각을 유아지능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이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오차항의 독립성 확인을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 모두에서 통계량이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이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여 *VIF*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의 모든 독립변인의 *VIF*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가족상호작용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beta$	<i>t</i>	<i>R</i> <sup>2</sup>	<i>F</i>
가족상호작용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39	-.45	-7.54***	.20	56.80***

*p*\*\*\* <.001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beta=-.45,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20%( $F=56.80, p<.001$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가족상호작용이 높다고 보고한 김수원(2006)과 정그린(2016), 최윤희, 문혁준(2017), 홍예지, 이순형(2017a), 홍지연(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유아지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F
동작성지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53	-.14	-2.08*	.02	4.32*
언어성지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21	-.26	-4.03***	.07	16.23***
전체지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10	-.26	-3.98***	.07	15.88***

p\*\*\* <.001, p\* <.05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동작성지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beta=-.14, p<.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2%( $F=4.32, p<.05$ )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성지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beta=-.26,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7%( $F=16.23, p<.001$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지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beta=-.26,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7%( $F=15.88, p<.001$ )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지능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영아의 동작발달과 언어발달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이경하(2009)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동작성지능검사 중 하나인 토막짜기 소검사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이은지(2016)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동작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은 2%로 나타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은 7%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동작성지능보다 언어성지능에서 5% 더 높았다.

#### 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지능은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의 2요인의 구조로 구성되어있고, 유동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작성지능과 결정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언어성지능이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아지능을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으로 분류하여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회귀계수의 절대값 변화를 통해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방법이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통해 이루어졌다(Sobel, 1982).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매개변인의 성립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인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인 가족상호작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 가족상호작용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변인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이고,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그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여긴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을 동시에 회귀 방정식에 투입하였을 때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 때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에 대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가족상호작용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다면 가족상호작용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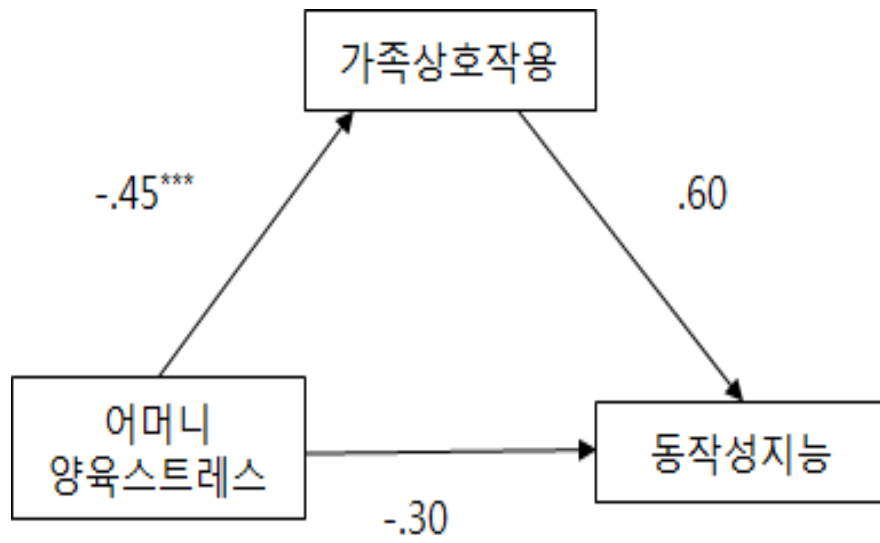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t	R <sup>2</sup>	F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동작성지능	-.53	-.14	-2.08*	.02	4.32*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39	-.45	-7.54***	.20	56.80***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동작성지능	-.30	-.08	-1.05	.02	3.80*
	가족상호작용	동작성지능	.60	.13	-1.80	.03	

$p^{***} < .001, p^* < .05$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동작성지능에 미치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14, p < .05$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설명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45, p < .001$ ). 하지만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가족상호작용이 동작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동작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상호작용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아래의 [그림 2]에서 도식화로 나타내었다.



[그림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도식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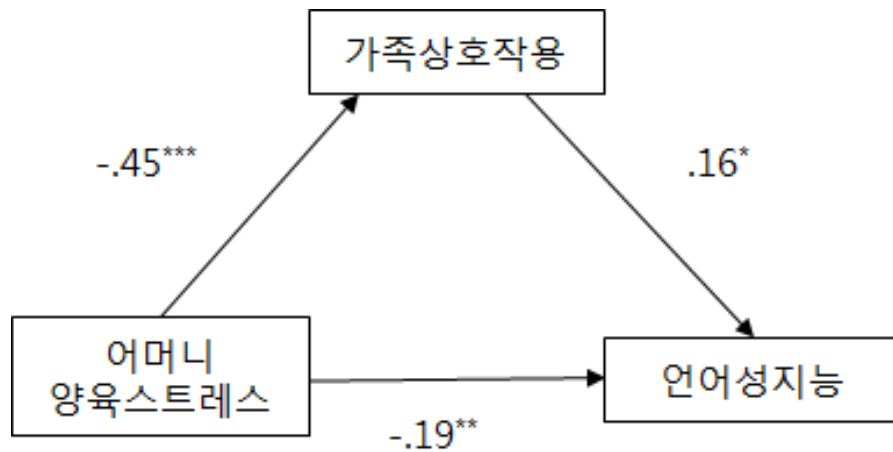
<표 1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t	R <sup>2</sup>	F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언어성지능	-1.21	-.26	-4.03***	.07	16.23***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39	-.45	-7.54***	.20	56.80***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언어성지능	-.89	-.19	-2.64**	.07	10.59***
	가족상호작용		.84	.16	2.17*	.09	

p\*\*\* <.001, p\*\* <.01, p\* <.05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26, p<.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설명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45, p<.0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가족상호작용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가족상호작용이 언어성지능에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고( $\beta=.16, p<.05$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설명력이 1단계( $\beta=-.26$ )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다( $\beta=-.19$ ). 따라서 가족상호작용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성지능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단독으로는 7%( $F=16.23, p<.001$ )를 설명하였으나, 가족상호작용이 투입 되었을 때 설명력은 9%( $F=10.59, p<.001$ )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함과 동시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언어성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3]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상호작용의 부분매개효과를 회귀계수와 함께 도식화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도식

최종적으로 이러한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2.32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부분매개효과는  $p < .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상호작용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논의

###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지능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먼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2.63점으로 2점(별로 그렇지 않다)과 3점(보통이다)사이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여아보다 남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여아보다 남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김기현(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67~89개월 여아보다 남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48~66개월의 유아는 남아보다 여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은지(201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여아일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한 우지혜(201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변인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변인들을 포함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상호작용의 평균은 3.78점으로 4점(대체로 그렇다)에 가까운 가족상호작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홍지연(2006)은 가족상호작용의 평균이 3.42점으로 중간수준의 가족상호작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남아보다 여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가족상호작용과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오채영(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유아기 부모의 놀이성과 가족상호작용에 관해 연구한 조옥미(2005)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여아보다 남아를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평균점수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가족상호작용의 변인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여아의 공격성과

충동성,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결여 되고, 남아의 경우 가족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송은경(2003)의 연구와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와 상호작용의 응집도가 높고, 심리적 거리도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는 백문화(1991)의 연구결과로 지지되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보고한 가족상호작용의 수준이 남아보다 여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더 상호작용적인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아의 일반적인 지능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검사의 환산점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유아지능의 전체지능( $M=102.53$ )과 동작성지능( $M=105.52$ ), 언어성지능( $M=99.33$ )은 평균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아보다 여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지수가 높았다. 이는 한국아동의 지적 특성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한 윤소영(201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윤소영(2017)은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의 수행을 보고한 논문 70편 중 일반유아만을 검사한 논문 46편을 분석하였고, 일반유아의 지능검사 수행의 평균은 동작성지능 103.68 언어성지능 103.68 전체지능 103.23으로 103정도의 평균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지능검사 수행 평균 점수인 동작성지능 약 105, 언어성지능 약 99, 전체지능 약 102로 99~105 사이의 평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언어성지능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지능지수가 높은 것은 이은지(2016)와 이정식(200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하지만 동작성지능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Halpern, 1997)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지능의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대표성을 띄는 연구대상의 표집과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및 유아지능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유아의 전체지능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부적상관을 보고한 이은지(201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에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유아의 지능이 발달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아지능과 가족상호작용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 언어성지능과 가족상호작용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가족의 기능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족에 소속된 유아의 지능이 높을 것이라고 시사된다. 또한 각 변인들은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보다 언어성지능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이 가정환경의 제반요인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언어성지능과 상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고은경(2017)과 홍예지, 이순형(2017a; 2017b), Margalit & Kleitman(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셋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가족의 상호작용적 형태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가족의 기능을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를(정그린, 2016; 정소영, 조결자, 2007)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윤경(201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낮은 것으로 보여 졌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족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2%였고,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7%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유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유아의 토막짜기 소검사수행과 작업기억, 전체지능, 일반능력 지표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다는 이은지(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소근육 운동발달과 인지발달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경하(2009)의 연구결과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발달 및 동작발달이 낮다고 보고한 정미라(2014)등의 연구결과, 그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유아의 지적능력 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고한 오연택(201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서수민, 2018; 오연택, 2018; Cowan & Cowan, 2000)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성지능에 미치는 7%영향력과 동작성지능에 미치는 2%의 영향력의 차이가 났는데, 이는 Cattell(1941)의 이론과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언어성검사(예; 어휘)는 결정성지능을 측정하고, 동작성검사(예; 토막짜기)는 유동성지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한국아동검사연구회, 2010)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인 양육스트레스와 가족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유동성지능보다 결정성지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언어성지능이 동작성지능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 하위요인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동작성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

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은 매개변인으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의 상호작용의 기능이 떨어지고, 유아의 언어적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가족의 상호작용의 방해는 유아의 언어적 수행능력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의 상호작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상호작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 내에서 지각하는 정서적 연결과 지지와 같은 가족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양진희, 김영철, 2016; 홍예지, 이순형, 2017a; 2017b)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지적수행결과에 부분적으로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경하, 2009; 이은지, 2016; 정미라, 외, 201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지적영재성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이채호, 2016; 장경자, 최재호, 2013; 정선미, 2011)결과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검증은 언어성지능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Cattell(1941)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환경적 영향으로 개발된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결정성지능은 일반적으로 언어성지능검사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다 유전적인 유동성지능은 일반적으로 동작성지능검사로 측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에 의해서 언어성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제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지능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세 변인의 통합적 관계를 검증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만 5세의 취학 전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에 기초한 유아지능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의 연령을 확장하여 이에 따른 연속적인 지능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기로 접어든 아동까지의 심층적이고 종단적인 연구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모두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유아는 부모나, 교사, 또래와 같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사회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아동패널의 자료적 한계점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의 측정방법은 모두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한 것으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자기보고에만 의존해서 어머니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찰과 면담을 포함한 방법의 보완으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K-WPPSI(박혜원, 외, 1996)로 유아지능을 측정하였다. K-WPPSI가 1996년에 표준화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였고, 2016년에는 K-WPPSI-IV(박혜원, 이경옥, 안동현, 2016)가 표준화 되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최신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지능을 다면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하였던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지능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이들 변인 간의 더 면밀한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상호작용과 동작성지능,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성지능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이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을 포함한 전체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었고,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족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유아의 세부적인 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지능발달에 필요한 기존의 부모교육이 단순하게 정보제공의 주를 이루었던 것과는 달

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가족 간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강병재(2010).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상호작용 및 사회적 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4), 93-110.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7.
- 고은경(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 및 배우자 양육분담이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비교. **인지발달중재학회**, 8(3), 1-18.
- 권소영, 박지수, 이재림(2018).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64-164.
- 김기현(1997). 어머니의 역량, 부모 역할관과 양육스트레스.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 35(5), 141-150.
- 김동배, 권중돈(2005).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4(2), 101-119.
- 김선화(2005). ADHD 유아의 기질 및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원(2006).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및 영유아의 울음과 기질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김수영(2009). 가정환경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0(5), 87-102.
- 김순옥(1988). 부모자녀 간의 응집성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과학**, 28(1), 115-131.
- 김윤경(2015). 지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애(2001). 자녀성장단계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비교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휘(2000). 가족이 영재성 발달에 끼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10(2), 110-139.
- 김지인(2018). 2018 다보스 포럼, 인간 역량의 혁명 (skills revolution) 제시. **브레인**, 68, 64-67.

- 김진경, 김혜라(2012). 아동의 발달 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 53-67.
- 김향자(2000). 유아의 다중지능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어머니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도남희, 박창현, 김지현, 조혜주(2016).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과 뇌 발달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마주리, 김현자, 김은주, 장은정, 유준호, 김지영(2017). **영유아발달**. 서울: 태영출판사.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민현숙, 문영경(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43-56.
- 박경미(201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새롬, 박혜준(2016).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가 온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한국아동학회**, 37(5), 33-52.
- 박찬경, 강지현(2013).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교육종합연구**, 11(4), 1-22.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2018). **발달장애 아동의 지능수행 특성과 인지중재 프로그램**. 울산: UUP.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1996). 한국형 유아지능검사(WPPSI)의 표준화. **한국발달심리학회지**, 9(1), 60-70.
- 백문화(1991).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민(2018).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 어휘력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중재학회지**, 9(3), 51-67.
- 서은미(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주현(2014). 가정문해환경, 유아의 지능, 문해능력 간의 관계.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73, 101-121.

- 손문석(1983). 幼兒의 家庭環境과 語彙力과의 關係: 4-6歲 幼兒를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화(2016).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모-아 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연숙,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송은경(2003). 가족기능과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나리, 안재진(201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5(5), 135-154.
- 신동은(2001). 자폐아 가정의 가족기능과 가족 만족도에 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 439-458.
- 양진희, 김영철(2016). 유아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81-106.
-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 오수진(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연택(2018).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지적능력 간의 관계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채영(2010). 가족기능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경희(2017). 유아기 자녀 가족의 가족체계 기능과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2), 99-117.
- 우지혜(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호성(201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 발

- 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희(1999). 가정환경과 지능발달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소영(2017). 한국아동의 지적 특성에 관한 문헌연구: 한국 웨슬러 유아 및 아동 지능검사 수행 분석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희, 김리진, 하수민(2006). 건강가정지원 사업에서 가족 중심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도 조사: 통합장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적 접근. **인간발달연구**, 13, 15-34.
- 윤혜경, 장유경, 박운조, 박혜원, 권오식(2011). 저소득층장애모유아의지능발달. **인지발달장애학회지**, 2(1), 19-39.
- 이정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옥, 고정자(1992).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1), 99-111.
- 이선미, 강윤희(2015). 유아 자기조절력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유아 리더십의 매개 효과 분석. **아동교육**, 24(3), 225-238.
- 이세은(2016).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이봉선(1999).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서울: 창지사.
- 이순복(2005). 영재유아 및 일반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사고개발**, 1(1), 41-67.
- 이영진, 김미래, 이은형(2018). 부모의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45-67.
- 이은지(2016). 어머니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지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조재현, 김영희(2014).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유아의 학습행동을 통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3), 341-365.
- 이정식(2004). 지능과 창의성의 발달경향성 분석: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2016).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유연성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이채호(2016). 유아 영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창의성, 동기, 가족체계 간의 구조모형 분석. **영재교육연구**, 26(2), 281-297.
- 임병희(1996). 가정환경이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순화, 박선희(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278.
- 임지영, 도금혜, 류혜원, 문영경, 배기조, 송혜영, 이수원(2017). **영유아발달**. 고양: 공동체.
- 장경자, 최재호(2013).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관계 분석.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7(3), 523-539.
- 장명립, 이미화, 김은영, 김문정(2008).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사업**.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 장성희, 손상희, 손희정(2015). 부모의 창의적 성격 특성과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행동 특성의 관계: 가족기능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24(1), 303-320.
- 장희정(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그린(2016). 영유아기 자녀 어머니가 인식하는 가족기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강수경, 이방실, 김민정(201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인지 및 동작 발달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97-117.
- 정선미(2011).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간의 관계.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 조결자(2007). 정상아와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대한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6(3), 258-266.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은아, 김은정(2014). 아동 양육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239-265.
- 정지나(2013).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조절효과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6(4), 283-296.
- 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나종혜(2006).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신정.
- 조성희(2017). **영유아발달**. 파주: 정민사.

- 조옥미(2005). 유아기 부모의 놀이성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2016). 유아 자기조절 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497-521.
- 최미영(2011). 미취학아동을 둔 한 부모 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 문혁준(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1(6), 417-435
- 최지현(2013). 유아, 어머니, 교사 특성이 어머니-교사 협력관계 및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횡단 및 종단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성경(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지능과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15). **부부 간 자녀 돌봄 분담 정도**. 서울: 통계청.
- 한국아동검사연구회(2010). **2010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워크샵(초급과정)**. 한국 아동검사연구회.
- 홍예지, 이순형(2017a).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8(2), 37-50.
- 홍예지, 이순형(2017b).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1(1), 105-125.
- 홍지연(2006). 발달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Charlottesville. Virginia,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ckerman, N. W., & Behrens, M. L.(1956). A study of family diagnosi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26(1), 6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rk, L.(2004).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Pearson Education India.
- Bernstein, B.(1961). Aspect of language and learning in the genesis of social proce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4), 313-324.
- Binet, A., & Simon, T.(1916). *The intelligence of the feeble-minded*.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Bouchard, T. J., & McGue, M.(1981). Familial studies of intelligence: A review. *Science, 212*(4498), 1055-1059.
- Bradley, R. H., & Caldwell, B. M.(1976).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mental test performance at fifty-four months: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47*(1), 1172-1174.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e-Smith, J.(2005).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5th ed.)*. St Louis, MO: Elsevier Mosby.
- Cowan, C. P., & Cowan, P. A.(2000).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The big life change for couples*. New York,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rnic, K. A., & Greenberg, M.(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rnic, K. A., Gaze, C., & Hoffman, C.(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4*(2), 117-132.
- Dearborn, W. F., & Rothney, J. W. M.(1941). *Predicting the child's development*. Oxford, England: Sci-Art Publishers.
- Farmer, A. Y., & Lee, S. K.(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perceived mastery, and maternal depression on parent - child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5), 516-525.
- Gardner, H.(2006). *The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the mind: The selected works of Howard Gardner*. Routledge.
- Halpern, D. F.(1997). Sex differences in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ion. *American Psychologist, 52*(10), 1091.

- Herskovits, M.(2000). Family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high ability.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4(3), 237-246.
- Hess, R. D., & Shipman, V. C.(1965). Early experience and the socialization of cognitive mod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36(1), 869-886.
- Jackson, D. D.(1965). The study of the family. *Family Process*, 4(1), 1-20.
- Kantor, D., & Lehr, W.(1975).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Jossey-Bass.
- Kirk, S., Gallagher, J. J., Coleman, M. R., & Anastasiow, N. J.(2011).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Boston, MA: Cengage Learning.
- Lamb, M. E.(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In M. E. Lamb (Eds.),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Vol. 5, pp. 1 - 26). New York, NY: Wiley.
- Lavee, Y., Sharlin, S., & Katz, R.(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An integrated mother-father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17(1), 114-135.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uster, T., & Okagaki, L.(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2th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ackler, J. S., Kelleher, R. T., Shanahan, L., Calkins, S. D., Keane, S. P., & O'Brien, M.(2015). Parenting stress, parental reactions, and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s 4 to 10.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2), 388-406.
- Margalit, M., & Kleitman, T.(2006). Mothers' stress, resilience and early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21(3), 269-283.
- Minuchin, S.(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D. B., & Hauser-Cram, P.(2009). Early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Two years after early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2(1), 3-16.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 Nichols, R.(1978). Heredity and environment: Major findings from twin studies of ability, personality, and interests. *Homo*, 29, 158-173.
- Olson, D. H.(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 Gorall, D. M.(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 systems. In F. Walsh(Eds.), *Normal Family Processes* (Vol. 3, pp. 514–547). New York, NY: Guilford.
- Olson, D. H., Portner, J., & Bell, R.(198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FACES II)*.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1), 3–28.
- Onodera, M.(2005). Marital change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apanes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1), 15–25.
- Patterson, G. R.(1983). Stress: A change for family process. In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235 - 264). New York, NY: McGraw–Hill.
- Raphael, J. L., Zhang, Y., Liu, H., & Giardino, A. P.(2010). Parenting stress in US families: Implications for paediatric healthcare utilizatio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6(2), 216–224.
- Santrock, J.(2008). *A topical approach to life–span development*. New York, NY: McGraw–Hill.
- Scarr, S.(1997). Why child care has little impact on most children’s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6(5), 143–148.
- Sepa, A., Frodi, A., & Ludvigsson, J.(2004). Psychosocial correlates of parenting stress, lack of support and lack of confidence/securit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2), 169–179.
- Shenkin, S. D., Starr, J. M., & Deary, I. J.(2004). Birth weight and cognitive ability in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6), 989.
- Shigeto, A., Mangelsdorf, S. C., & Brown, G. L.(2014). Roles of family cohesiveness, marital adjustment, and child temperament in predicting child behavior with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2), 200–220.
- Siegler, R. S., & Richards, D. D.(1982).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Eds.), *Handbook of human intelligence* (pp. 897–97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eels, H. M.(1966). Adult status of children with contrasting early life

- experiences: A follow-up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1(3), 1-65.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 290-312.
- Sternberg, R. J.(1985). *Beyond IQ: A triarchy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rman, L. M.(1921). Intelligence and its measurement: A symposium II.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2(3), 127.
- Wechsler, D.(1939). *The measurement of adult intelligence*.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Witt, S. J., & Cunningham, W. R.(1979). Cognitive speed and subsequent intellectu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4(4), 540-546.
- Wolf, R.(1964).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 process variables related to intellig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rld Economic Forum.(2016, January).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lobal Challenge Insight Report*.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Zhang, C., Cubbin, C., & Ci, Q.(2019). Parenting stress and mother - child playful interaction: The role of emotional support. *Journal of Family Studies*, 25(2), 101-115.

# Abstract

##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Inter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Kim, Ah Reu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maternal parenting stress, family interaction and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and analyzed whether family interaction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general trend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family interaction, and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 1-1. What is the general trend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 1-2. What is the general trend of family interaction?
  - 1-3. What is the general trend of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2. What is the relation among maternal parenting stress, family interaction, and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3. What is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family interaction and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4.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inter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second year in-depth survey and the sixth year general survey of 2013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Items on psychological burden of parenting from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Kim & Kang, 1997) were used to measure maternal parenting stress levels. To measure family interactio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FACES-IV) developed by Olson (2010) were used. To measure IQ, Korea 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Intelligence (K-WPPSI) that was standardized by Park, Kwak, & Park (1996) was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5.0: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well as Sobel's Test (1982) were performed.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moderate, and the average stress of mothers with boys tended to be higher than that of mothers with girls even 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Next, mothers reported that their feelings and thoughts on quantity of family interaction were, on average moderate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Children's average intelligence (performance IQ, verbal IQ, and full scale IQ) was in the range of average without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Second, correlational analyses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maternal parenting stress,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n's intelligence (performance intelligence, verbal intelligence and full scale intelligence). More specifically,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interaction, while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n's intelligence in tur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intelligence.

Third, maternal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amily interaction, preschool children's full scale intelligence, performance intelligence, and verbal intelligenc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explained the 7 percent of variability of verbal IQ while they explained 2 percent of variability of performance IQ, and they explained the 20 percent of variability family interaction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family inter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verbal intelligence. While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the family inter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erformance intelligence.

These findings replicated the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that parenting stress and family interaction are related to children's intelligence and extended the previous literature by using a large scale nation-wide dataset and showed that these family factors may have more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verbal IQ than their compared to performance IQ.

Finally, there was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family Inter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verbal IQ, but no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of family interaction was observed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erformance IQ.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arenting stress may have differential effect on children's verbal and performance IQ. Together,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rograms that reduce parenting stress and promote more positive family interaction are needed to foster Korea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Key Words: maternal parenting stress, family interaction, preschool children's intelligence.

# 부 록

## 1. 한국아동패널 6차(2013년도) 질문지

### 1) 양육스트레스

다음은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 다	별로 그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대체 로그 랑다	매우 그렇 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2) 가족상호작용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족 간에 상의나 질문 없이 아래의 질문을 읽고 적절한 응답을 골라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 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부는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의 훈육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함께 자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각자의 관심사가 있어도, 가족 행사·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분명한 규칙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친밀하면서도 개별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①	②	③	④	⑤